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朝鮮女性의技藝的努力
―生活運動의一部門―

一

技術과管理的幹能이 人間의 社會的生活에잇서서 甚大한必要가잇는것은 吾人의說明을要치안는바이다 더욱히科學의發達에因한現代의生活이 大部가物質的及機械的의組織의土臺우에잇는오늘날에잇서서 이技術및管理의幹能이 곳一民族一社會의盛衰와榮辱을支配하는것은當然한일이다 史上에잇서詩的으로 哲學的으로 또는其他一般的形而上的으로 非常한發達을보이고서도 居然히空虛와窮乏의가운데에陵遲하며崩壞의悲慘을들러낸例가매우만타 希臘의燦爛한文藝의文明은 몰이어그時代人心이 이미頹然한頹廢期에 들에의일이엇섯다 印度人의幽玄深邃한哲學的論理와 및縹渺綿爛한詩的表現은자못世界에冠絶한바이지마는 現實의社會에잇서서 印度三億의人民은 드되어窮乏한劣敗者의運命을벗지못하엿다 吾人은民衆의生活化를高調하는것만큼 그들의技術및管理的幹能의迅速한進步를力說하는바이다

二

朝鮮人은文藝的國民이다 그들은보다더詩的이요 哲學的이오 또宗敎的이다 그들은보다더現實을遊離하는浪漫的의國民이다 義冠博帶의白衣人 東洋의禮子國의氣分은 비로부터지금外지 크게變한바업것다 그들은자못物慾에等閑한恬淡한國民들이다 近古累百年의 往古는別論으로하고 그들의歷史는곳恬淡無欲한隱士的生涯로서 거의그大部를꾸몃다 그들은仙道를崇尙하엿다 그는보다玄妙한生活의恬淡을高切하는思想이엇섯다 그들은또佛敎를尊崇하엿다 그러나그도또한深山幽峽世間을멀리떠난곳에서 오즉淸淨虛無한修行的生活로써 그極致를삼엇섯다 生活苦에부대긴北中國의質實한人士들로因하야創作되고 生長된 治天下의大經大法을論하는儒道外지도 朝鮮에와서는 돌이어다만傳授하는心法과및禮儀의形式等에偏하는 特殊한體系를지고말엇다 浴乎沂風乎舞雩하고 詠而歸하는淸遊의 氣分과 및飯疏食菜羹하고 曲肱而臥 樂在其中의疎脫한氣風은 얼마큼朝鮮의讀書子로 그의消極的의傾向을助長하엿는자 이것이現存한儒生들의實際生活에돌어보더라도매우顯著한實例이다 그러나이는또되어 一民族一社會의繁榮으로引導하는바가아니다 吾人은이제보담發展과繁榮을 吾人의前途에求한다

三

最近의調査에依하건대 朝鮮의朝鮮人人口는 거의二千萬을算하리라한다 海外에잇는數百萬의朝鮮人을合하야 우리는二千數百萬의자못膨大한人民을形成하엿다그러고그의面積도또한八萬二千餘方哩를算함에不計하고그의富力은오히려人口五百餘萬을集하는 南海의一小島臺灣人을凌駕할수업다아니도리어그들에比하야多少의損色이잇슴을아니다 컨드라모그의比較的見地에서는 朝鮮人은그들에게確實히雖等의遜色이잇다 이는그의天然한物産의關係도잇고 또는壓倒的인外來한經濟力에因한바도잇는바이지마는 吾人은이朝鮮人의獲得的或은生得的의恬淡한性質이 스스로物質에淡泊하고또는産業에等閑함에因함이라한다 그는否認치못할事實이다 吾人은今日社會의가장上層에잇든盲腦者인朝鮮人일스록이러한偏唯心的傾向이잇는것을볼에에朝鮮人의오늘날의貧窮이또한久遠한一原因이잇는것을맛는다

四

이靑女性의方面으로본다할지라도 또한同一한傾向을免치못하는것갓다 論者잇서서女性은보담打算的이오 보담利己的이라한다 그리고그는그들이長久한年月을 實際로家計를料理하는實務的方面에從事한所以이라한다 吾人은또한이를承認한다 그러나朝鮮의女性은 自來로極히局限된部分의外에는 技術的方面에從事할機會를니하엿섯다 그리고技術或은 賤視하는傾向外이는또한 否認치못할 그리고이러한傾向은矯正및改造를要하는바 者現朝鮮의統治者가잇人의敎育에잇서서 오技術的敎導에着眼하는 吾人은그의動機의어떠키어렵거니와 朝鮮人그의科學的및産業的努는것은 明白한일이오 技術的및管理的幹能을것은 매우必要한일이 性에게와가티女性에게것이다 近者京城內八의手工技藝의作品을蒐校를聯合하야케하고저하니 이는勿事이라 그러나이에서女性의技藝的努力의一미드려한다

風雲危急한中國情勢

吳、馮諒解成立說 奉軍은段執政擁護
◇…關稅會議에支障은無乎

(奉天七日發) 奉天省軍公署에入電한情報에依하면吳佩孚와馮玉祥과의諒解가成立되며吳佩孚는遂히河南에入하게되엿는데岳維峻도吳佩孚와提携한다하야奉天派는段執政의命을俟치안코當然段祺瑞氏擁護를目的으로何時外자든지戰할것을決心하엿다此로因하야關稅會議는支障을招致케되지안흘가觀測되더라

張馮妥協 尙不成立乎

(東京電) 去一日北京에서張作霖、馮玉祥、岳維峻等會見한結果는極秘密에局馮張間의最後的妥協되지안흘것은明確하야觀키不能하더라

乙種奢侈品稅에 日側大驚失色
日公使는妥協에大紛忙

(北京七日發) 中國이提議한乙種奢侈品目에就하야日本側은一驚을吃한다假量附加稅二分五厘가通過한다드래도事實上日本輸出品의大部分은高率의奢侈稅를課하기로되엿다日本大小의工業은非常한打擊을免치못할것이며中國이此案을突然提出한趣意가那邊에在한가는判明치안나中國全權中에도此條에就하야意見의相違가有하야徹치못할것이오日本側은論此等案을承認키不能하야한妥協案을提議할모양이며同公使는昨夜來大紛忙이더라

乙種稅附品目

(北京六日發) 蔡廷幹奢侈品表는甲乙에分하야甲은三割乙은二割의稅率로되奢侈品은烟草酒類 其他乙種은絹製品高等綿絲製品類魚類及其製品化粧品時計類玩具、電氣器具金屬製家이더라

對獨五個條要求
聯合國大使會議에서

(나우엔六日發) 巴里에서開催된聯合國大使會議에서『코룬』地帶撤兵을十二月一日부터開始하기로決定하엿다但右의條件으로次의五個條를獨逸側에要求하엿더라

一、獨逸國防軍總司令官『후온제ㅣ구트』將軍의有한總權限을縮少할것
二、獨逸의有한軍事團體는軍事訓練을行치못할條件下에此의存續을許可함
三、獨逸陸軍은選法인軍事團體로의外其補充을하지못할事
四、『게ㅣ니쓰』와『베르쿠』要塞에有한重砲二十二門을破壞치안코保存하야置한理由의說明
五、獨逸警察力은十할事를許치안코且國의警察과同一히 尙撤兵은二個月間을看做되더라

日英共產黨員 白耳義에서逮捕

(긔루ᄲᅳ리六日發) 에서日英人共產黨員는데同人은獨逸經西度語의不穩文書를所

在滿領事會議 七日奉天에서

(奉天電) 在滿日는七日午前十時부터

慶南道聯盟發起 馬山靑年聯合會에서

電話至急開通 十八日부터開始

普通學校用

金堤四郡畜評 大盛況으로終了

開城衡平社 紀念式盛況

全南解放同盟의 禁止議案

論山仁川靑年 會務의刷新과靑總加盟決議

營利會社治道를 人民에賦役强課 安州萬城人民의不平

警察이召集 郡草爭議에 同情말라고

鐵原四團體를

蔚山兵營에 避病院建築

大村飛機過邱

大建築準備의 蔚山同化義塾

米內가또理事 巨濟漁組에對한 漁民一般의抱恨

會舘建築計劃

南原電燈設置

金堤에서 記者團發起

李珣公家

同組合略

衡平運動을理解하라

自己의走

盛大히擧行된 衡平紀念祝賀

平壤靑年의 聯盟組織

記者團映畵會

昌原靑聯決議 執行委員會에서

延草敎育復振

定州郡의 新校位置問題 天台洞民決議와 學校分設의傾向

南朝鮮小學蹴球大會

平壤의 犯罪及檢擧數

引乃公普落成

萬珍齋開校

鐵原勞働夜學

黃州罹災總計

今年明太豊獲

南浦의 牛商打擊

地方學界

雲峰公普新築

三箕開校祝賀

査災後援決議

金堤靑年總會

◇寸鐵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Nov. 8th, 1925.

For God hath not appointed us 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by our Lord Jesus Christ. — I. Thessalonians. 5; 9.

THE UNMANNERY TIGE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IV

"I must go and see the trap before I can made up my mind," said the toad, who looked as solemn as a magistrate. So all three leaped, hopped, or walked to the trap. The tiger, moving fast, was there first, which was just what the toad, who was a friend of the priest, wanted. Besides, Old Speckled Back was diligently looking for a crack in the rocks near by.

So while the toad and the tiger were studying the matter, the priest ran off and saved himself within the monastery gates. When at last Old Speckled Back decided against Mountain Uncle and in favor of the man, he had no sooner finished his judgment than he hopped into the rock crevice, and, crawling far inside defied the tiger, calling him an unmannerly brute and an ungrateful beast, and daring him to do his worst,

Old Mountain Uncle was so mad with rage and hunger that his craftiness seemed turned into stupidity. He clawed at the rock to get at the toad, but Speckled Back, safe within, only laughed. Unable to do any harm, the tiger flew into a passion of rage. The hotter his temper grew, the more he lost his wit. Poking his nose inside the crack he rubbed it so hard on the rough rock that he soon bled to death.

When the hunter came along he marvaled at what he saw, but he was glad to get rich by selling the tiger's fur, bones, and claws; for in Korea nothing sells so well as a tiger. As for the toad, he told to several generations of his descendants the story of how he outwitted the old Mountain Uncle.

英文欄

호랑이 이야기 (完)